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

‘다만 죽음을 곁에 두고 씁니다’를 읽고

서른다섯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작가가 삶을 정리하면서 남긴 에세이다. 갑작스럽게 죽음이 턱밑까지 밀려들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죽음을 곁에 두고 이렇게 철학적인 사유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행간에 담긴 아픔과 후회와 고통과 신음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마음의 눈으로 읽어 내려갔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지만 피하지 않고 직면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작가는 존재의 불안, 인생의 부조리를 정면으로 직시한다. 결코 우울한 어조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 담담함 때문에 더 아프게 느껴진다. 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을 때, 환각과 무기력 증상에 시달린 후에도 작가는 글을 쓴다. 작가에게 '글'이라는 것은 죽음을 앞둔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애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의 방향과 속도

오래 살았다고 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다. 인생이 짧았다고 해서 더 불행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제3자가 판단한다는 것이 어폐는 있지만, 꼭 해야 한다면 생의 길이가 아니라 생의 밀도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그 나름대로 특별하고 아름다웠을 것이라고 믿는다.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 어떤 강렬한 의미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믿음이 삶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삶의 방향과 속도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서히 전진하는 느낌이 들 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든 그 삶이 얼마나 길고 짧은지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수명은 삶의 경험을 썰 수 있는 기능적인 혹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더 풍요롭고 심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

환희와 영광으로 채워진 십오 년과 고난과 환멸로 가득한 백 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백 년보다는 십오 년이 확실히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17쪽)

근원적 슬픔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 심리 변화를 겪는다고 한다.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감정의 소용돌이는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뒤돌아보고 죽음 이후의 삶을 고찰해 보는 단계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듯싶다. 그러나 작가는 어떻게 이토록 죽음 앞에서 의연할 수 있었을까? 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이유를 찾아내려고,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하지 않고 성찰의 경지에 이른 근원적 슬픔의 깊이가 느껴져서 더 아프다.

고독과 외로움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인지, 외롭기 때문에 혼자라고 느끼는 것인지 그 진위는 알 수 없다. 여럿이 무리 지어 있다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물리적 접촉과 거리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혼자 있어도 충분히 내적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함께 있어도 극한의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읽어내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교감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일정량의 고독은 함께 가도 좋을 친구처럼 곁을 내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작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의문이다.

어른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자기 자신과 문제없이 잘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절친한 친구는 고독이어야 할 것이다.(74쪽)

죽음에 대한 인식

우리는 한 치 앞의 일도 알 수가 없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은 예정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다. 어쩌면 회피하고 싶은

결지도 모르겠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제야 내 삶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모두가 부질없구나. 사소한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구나. 미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좌절의 감정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온다.

작가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죽음을 자주 언급하거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음에 결코 매몰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저 현재 삶의 가치와 남아있는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철학적으로 사유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죽음을 곁에 두고 써 내려갔던 글쓰기의 과정들이 그의 마지막을 외롭지 않게 했던 것은 분명하다. 모든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까지 명징한 깨달음으로 존재의 이유를 설명했던 작가의 담대함이 죽음을 넘어서는 가치를 남겼다고 생각한다.